

■ 인사말

통일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걷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통일은 여전히 한반도에서 매우 먼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사람답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그 중간 과정과 단계는 여러 가지 국제적, 국내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이 어떤 과정과 단계를 가지든지,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통일 준비와 통일 과정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영역이 가진 고도의 전문성, 정책적 지속성, 그리고 당장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응급성은 어떤 여건 하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 큰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보건의료 영역 통일준비에서의 기초가 됩니다.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를 통하여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구체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고 계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센터도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월 및 11월에 있을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전우택 올림

제26차 통일보건의료세미나 – 전유택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일시 : 2017년 9월 5일 (화) 18시
- 주제 :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소개
-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대회의실
- 발제 : 전유택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내용 : 의료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60여명의 교직원 및 학생이 참여.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소개와 학생들의 생활상 공유 및 질의응답시간으로 꾸며짐



제27차 통일보건의료세미나 – 김성민 건국대 철학과 교수



- 일시 : 2017년 9월 26일 (화) 18시
- 주제 : 북한 핵과 인권, 그리고 통일 문제
- 장소 : 연세의료원 종합관 교수회의실
- 발제 : 김성민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장/ 철학과 교수
- 주요 내용 :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인문학의 역할, 통일과 인문학의 결합으로서 '통일인문학'이 정립하는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 패러다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통일의 근원적 필요성에 대해 역설함



현장학습 보고

- 날짜 : 2017년 9월 16일 (토)
- 방문 장소: 도라산역, 도라산 전망대, 제 3땅굴, 판문점
- 참가자 : 의/치/간/약대 및 보건대학원 학생 26명 및 교직원 12명
- 취지: 분단의 현실을 실감하고 북한이 멀리 있지 않음을 체험하며 통일의식 고취

현장학습 스케치

지난 9월 16일, 통일보건의료센터는 간호대학 <통일과간호> 과목 수강생을 비롯해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많은 의·치·간·약학대학 및 보건대학원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DMZ 안보관광 및 판문점 견학을 다녀왔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세계적으로 북한의 안보관련 이슈가 급부상 하는 시기였기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에서 임진각으로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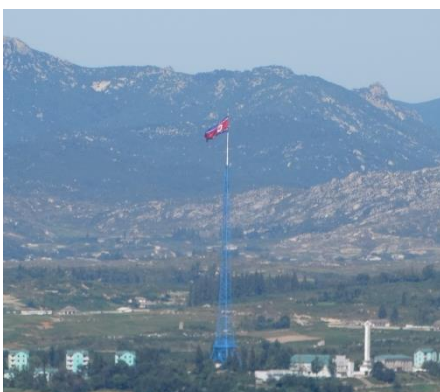


임진각을 지나 통일대교에서 명단과 신분확인을 거쳐 본격적인 견학을 할 수 있었다. 견학의 첫 번째 장소는 남한의 최북단 경의선 철도역인 도라산역 이었다. 평양방면이란 표기와 유라시아 횡단열차와 이어져 있는 미래 철도 노선의 지도는 참가자들에게 생경하지만, 신기한 광경이었다. 또한 철도역 내부 매점에 민통선 내부지역 특산품을 판매 하는 것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도라산역을 지나 북한의 땅을 직접 볼 수 있는 도라 전망대로 갔다. 날씨가 좋아 개성공단과 기정마을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북한측에서 홍보마을로 조성한 기정마을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이면서도, 우뚝 솟은 인공기가 위압감을 더했다.

다음으로 견학한 곳은 제 3땅굴 이다. 총 길이 1635미터의 땅굴이나 현재 남쪽에서 265미터 구간만 견학할 수 있었다. 약간 가파른 경사로 15분여를 내려갔을 까, 북한 군인들이 작업하던 갱도가 보였다. 잿빛으로 화강암을 칠하여 석탄채굴을 하던 것으로 위장하려 했던 흔적을 보며 대립의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전체 땅굴 길이에 비하면 매우 짧은 구간을 걸으면서도 숨이 가빠오고 땀이 났다. 1635미터의 땅굴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포들이 다치고 사망하기도 했던 것을 떠올리며 이데올로기로 인한 민족의 고통이 느껴지는 길이었다.





Joint Security Area



마지막으로 영화로 유명했던 공동경비구역 (JSA)이 있는 판문점을 견학했다. JSA주차장에 도착하자 우리를 인솔할 헌병이 나와 두 달 전 제출했던 명단과 신분증을 대조하며 꼼꼼히 신원확인을 했다. 그리고 경직되고 절제된 목소리, 말투로 견학순서와 주의할 점에 대해 전달했다. 항상 남북이 서로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있는 곳임을 강조하며 언행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북 대치의 현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서자 맞은편에 북한의 판문각 건물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북한 군한 명이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역사가 만든 경계선을 넘어가면 나와 너무도 닮은, 같은 한글을 쓰는 사람이 나를 향해 발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군사분계선 위에 세워진 회담장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개의 탁자가 있었다. 당장이라도 그 곳에 앉아 통일을 논의하면 될 것 같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라 안타까웠다. 회담장 안은 군사분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공동의' 구역이었다. 군사분계선의 북쪽 구역으로 회담장 안에서나마 거닐어 보았다.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7·4남북공동성명을 위한 사전 접촉 등 화해를 위한 발걸음들이 이뤄졌던 장소에서 다시 한 번 화해의 기운이 깃들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이 분단의 현실을 느끼고 통일을 열망해야 하기에, 더 많은 사람이 이 지역을 방문했으면 좋겠다. 비록 판문점을 방문하는 것은 두 달 전에 신청하여 유엔 측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원보증 등의 절차가 번거롭지만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며 '통일'이 역사적인 소명인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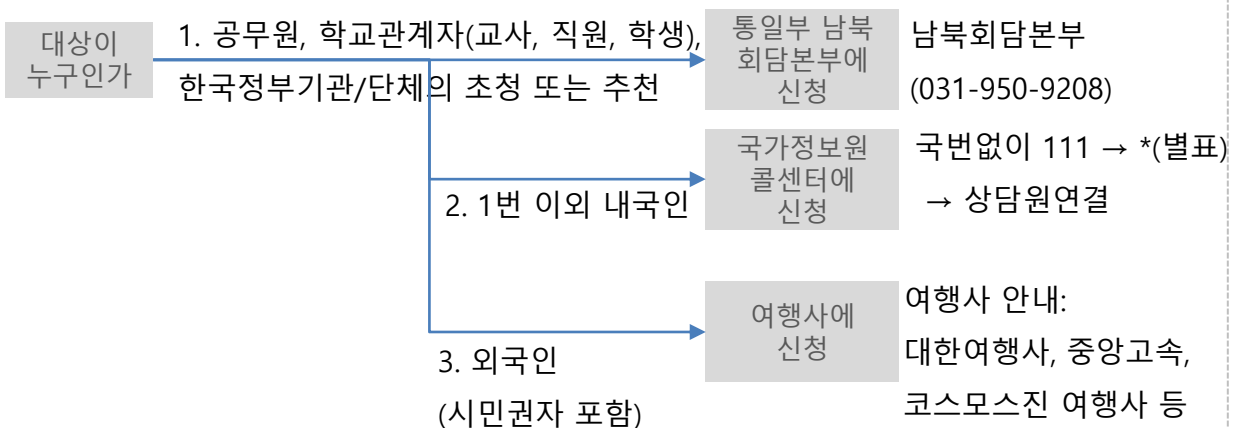
우리가 견학을 간 당일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님들을 보며 흐뭇하기도 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은 현실이 조금 부끄러웠다. 더 많은 사람이 분단의 슬픔과 부당함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통일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가했다 ■



판문점 견학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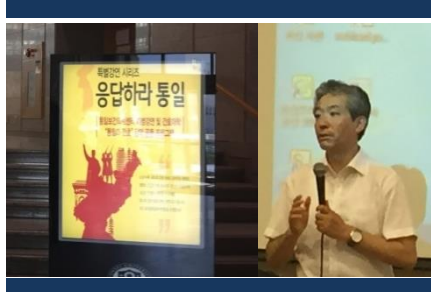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분 들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내 “판문점 방문/견학”페이지 참조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평화공존적 역사인식과 자세
(김성재 이사장)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정병호 한양대 교수)

북한 영화를 통해 본
북한과 북한사람들 (전영선 교수)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는 간호대학 <통일과간호> 과목과 공동 특강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총 5회의 특강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북한과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부 저명한 인사들의 강연으로 이뤄진다. 간호대 학생 뿐 아니라 타 단과대 학생 및 교직원들 또한 청강이 가능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북한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회의 강연이 진행되어 10월 13일 금요일 간호대학 자유관에서 마지막 강연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 날은 남북하나재단의 김영인 상담사가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통일 후 남북한 보건의료 및 간호의 과제에 대해 강의한다.

강연1.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대내적,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분단이 한미일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았다. 분단의 고착화와 장기화를 이념과 권력의 대결,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의존 강화에서 찾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분단이 고착화, 내면화되었음을 밝혔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건국절 역사인식 문제를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로 어수선한 국제정세를 정확히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며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의 입장에 대해 분석했다. 분단된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4개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남북의 평화공존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임을 전하며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역사인식과 가치관, 자세가 중요함을 역설했다. ■

강연2.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북한의 예술과 영화, 만화의 특징을 통해 북한 문화의 특징과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제 북한 제작의 영상을 시청하며 강의가 진행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영선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예술은 정치의 또 다른 양상으로서 문화의 내용과 사상은 국가가 독점하며, 이로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된다.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거나 공중도덕, 가족 예절 등 사회질서 유지 및 정부에서 지향하는 생활상을 제시한다. 특히 고난의 행군과 같은 집단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서사적으로 재구성하여 집단적 기억을 교정하는 역할을 했다.

끝으로 이러한 문화예술적 동원 하에 남한 사람들과 상이한 가치관과 정서를 형성한 북한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하여 '통일'이후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살아나갈 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



통일보건의료센터 특강 및 간호대학<통일과간호> 공동 프로그램 - 일정안내

■ 시간 및 장소 : 오후 4시 ~ 6시 [간호대학 1층 자유관]

일자	강의주제	강사명(소속)
09/01(금)	분단과 우리 사회의 이해	김성재(연세대 김대중도서관)
09/08(금)	분단과 북한 사회, 사람의 이해	조명철(전 국회의원, 전 통일교육원장)
09/15(금)	영화와 소설 속 북한 사람들	전영선(건국대)
09/29(금)	북한 사회와 문화의 이해	정병호(한양대)
10/13(금)	탈북자에 대한 이해 및 통일 후 북한 보건의료 및 간호의 과제	김영인(남북하나재단)
11.10(금)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및 간호체계와 보건의료 및 간호인력 양성과정 비교	추상희(연세대 간호대)

주요 활동 알림

○ 의과대학 본과 3학년 Grand Round 진행

주제	<통일과의료>
날짜	10월 18일 (수)
목적	통일 시대의 예비의료인으로서 주체적인 태도 함양하도록 하고 올바른 북한사회/통일에 대한 인식을 돕기 위함
내용	분단상황 및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 통일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측면의 이슈 및 대응에 대한 토론 등

○ 간호대학 2학기 통일관련 선택과목 개설

과목명	통일과 간호	책임 교수	추상희 교수
대상	간호대학 학생	학점	1학점
내용	- 9월 1일 ~ 11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간호대학 자유관에서 강의 - 6번의 외부인사 초청 강연 중 3회 강의에 대해 옴니버스트강 지원사업비 지원 - 9월 16일(토) DMZ안보관광 및 판문점 방문 프로그램 참여		

○제 28회 통일보건의료센터 세미나

- Christopher Davis 옥스퍼드 경제학과 교수 초청 세미나

일시	2017.10.17(화) 오후 6시	장소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
주제	Morbidity Icebergs (Reported and Hidden Illness) in the USSR and Russian Federation: Lessons for South and North Korea		
내용	수면 위로 보이지 않는 병산의 숨겨진 부분처럼 숨겨진 질병이 구소련과 러시아의 보건 의료경제에 끼친 영향과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그리고 통일로 가는 변혁기 남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봄		

○제 3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

일시	2017.11.27(월) 오후 6시	장소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
내용	학생 및 교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정세 및 북한에 대해 알기 쉽게 접근하여 통일에 대한 고민을 한 층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통일보건의료학회 관련 소식

○2017 추계 학술대회

일시	2017.10.13(금) 오후1시-6시 30분	장소	동국대 서울캠퍼스 신공학관 4층 강당
주제	통일준비와 보건의료 정책		
내용	- 기조강연: Christopher Davis 옥스퍼드 경제학과 교수 "Lessons from the Study of Health Sectors During Economic Transition in Russia, Eastern Europe and China for Health in North Korea" - 통일준비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패널토의, 통일대비 사회보장 관련 발표 등		

